

“한글음성문자(The Korean Phonetic Alphabet)”의 연원에 대한 고찰

심 소 회
북경대 박사과정

< 국문요약 >

한글은 세계 어느 문자처럼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문자체계가 아니라 수천년간 인류의 어음에 대한 사유와 고도의 어음기술이 집약된 문자관에 의해 연역적 방법으로 창제된 문자체계이므로 다른 문자와는 차별적인 연구방법이 요구된다. 세종조에 편찬되었던 《訓民正音》·《洪武正韻譯訓》·《東國正韻》는 제작 동기와 목적이 달라서 각각 상이한 어음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각 어음체계가 필요로하는 글자꼴을 한글은 27개(자음16개, 모음11개)의 기본글자꼴에 발음부위 및 발음방법을 상형한 새로운 글자꼴을 제공하여 각각의 문자체계를 구성하였다. 유교적 언어관의 토양에서 세상 모든 음의 생성원리에 의해 창제된 한글은 바로 세상의 모든 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체계인 것이다. 이러한 한글음성문자는 오늘날 이질어음체계의 외국어를 표음하는 데에도 예외없이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자꼴의 유연성·응용면에서 국제음성문자(I.P.A)보다 월등히 과학적이고 완전한 음성문자로서 기능할 수 있다.

1. 들어가는 말

일반적으로 기원전 인도인들이 고대 산스크리트어를 기술한 시기를 음성학 연구의 효시로 보고 있지만 서양에서 음성학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의 일이다. 17·18세기에 비교언어학 또는 역사언어학 등에서 古音을 재구하면서 음성적 규칙을 많이 다루기는 하였지만 19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과학주의 학풍과 음성학 연구를 위한 과학적 기구가 발달하였고, 1888년 국제 음성학 협회(Internation Phonetic Association)가 성립되면서 세계의 모든 언어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음성문자(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가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음성학이 발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기원전 인도인들의 언어 記述과 언어 본질에 관한 연구방법이 그대로 중국을 거쳐 조선에까지 수 천년간 면면히 계승되어 장구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각 문화별로 언어에 대한 연구 전통이 민족적 또는 지역적인 개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질적인 언어체계에 따른 다각적인 사유방식을 통하여 더욱 완전한 연구 방법과 관념을 모색하면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당송과 명청시기의 200여 종이 넘는 운서(韻書)·운도(韻圖)와 조선 전후기의 적지 않은 운서 및 운도는 이러한 사유전통이 빚어낸 성과물이었으며, 특히 조선 초기의 한글은 이러한 사유전통과 조선나름의 문화적 역량을 배경으로 세상의 모든 음을 기록할 수 있는 음성문자로서 창제되었다.

그러나 19세기부터 서양의 기술, 제도, 사상, 종교, 철학 등 제반 문물들이 밀어닥쳐 들어와 西勢東漸의 시대가 되면서 수천년간 진지하게 논의되었던 동양의 어음에 대한 사유전통은 화석화되어 버렸고, 서양과 동양의 언어에 대한 연구방법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양의 모든 어음자료들은 서양의 학문방법과 관점에 의해 결

론지어지는 경향이다.

본고에서는 인도 - 중국 - 조선을 거치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언어 기술과 언어 본질에 관한 연구 전통¹⁾에 대해 개략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동양에서 수 천년 동안의 어음에 대해 논의되었던 집적된 인류 사유체계의 패적을 추적하면서 세상의 모든 어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창제된 한글의 형성과 성격에 대해 이해하고 아울러 그의 현대적 의의를 탐구하여 앞으로 한글음성문자가 갖는 역할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언어 이론 및 정음관의 전승

약 기원전 1500년 인도에는 고대 산스크리트어(梵語)로 쓰여진 《베다veda》라는 전적이 있었는데 브라만교의 최고의 경전이였다. 이 베다가 후세에 정확하게 전승되어야 할 필요 때문에 인도에서는 일찍이 언어와 문자가 중시되어 音韻·語法·詞源·音律·天文 등이 고도로 발달하였고 아울러 언어의 영구불변을 주장하는 언어사상이 성립되었다.

즉 梵語의 자음(體文)은 35개인데, 앞의 25字는 5字씩 발음부위에 따라 牙·齒·舌·喉·脣聲의 五類聲이라고 지칭되고 각 자음(devānagarī)는 발음방법에 따라 ‘不送氣清音 - 送氣清音 - 不送氣濁音 - 送氣濁音 - 鼻音’의 순서로 분류되었다. 또한 梵語의 모음(摩多)은 a, ā, i, ī, u, ū, ə, ai, o, au, r, ṛ, l, ḷ, am, aḥ의 16개가 있다. 그리하여 자음(體文)을 위쪽에 두고 모음(摩多)을 우측에 배열하여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梵語의 전체 음절을 맞추어 낼 수 있었는데 이러한 도표식으로 된 교과서를 ‘siddham’ ‘siddhām’ (悉曇章)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인도인들의 어음 기술 방법은 東漢이래 불교가 전래되면서 중국에 직접적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불교의 언어사상은 중국의 문인들에게 충격과 깨우침을 주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가히 위협적이였다. 예를 들어 교의상 언어에 높은 지위를 부여하였던 密敎에서는 범어의 보음과 원음 및 조합방법을 유기적으로 배합한 <悉曇章>이 세상의 모든 어음의 총목이라고 여겼다. 또한 불교에는 창조신인 브라만(梵天)이 언어와 문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기원설이 있는 반면, 중국에서는 倉頡이 새와 짐승의 발자국 등을 보고 문자를 만들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²⁾ 이를 불교의 기원설과 비교해보면 조금 격이 떨어지므로 불교도들이 유교나 도교에 비해 우월함을 선전할 때 특히 이 점을 강조하여 중국 고유의 한자와 한문 저작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였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오늘날의 세계는 毀滅의 劫災인데 범문만이 다음 겁의 세계로 영원히 유전될 수 있으며 다른 모든 언어와 문자는 소멸된다고 하였다. 불교의 주장대로라면 한자로 쓰여진 문헌은 장래 겁재를 당할 때 전부 훼손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교의 언어사상이 중국에 전래되면 유교의 근본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위협스런 것이었으므로 유교 및 유교경전의 영구불변을 보장하기 위해 불교의 언어사상을 능가할 수 있는 정밀한 언어이론체계가 요구되었다.

東漢이래 불교경전이 중국에 전해져 불경을 번역하면서 梵語學의 영향으로 정밀한 어음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고, 불교경전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대규모로 받아들인 외국문헌이므

1) 동양의 언어 본질에 관한 연구 전통을 본고에서는 ‘正音觀’이라고 명명한다.

2) 《說文解字·序》：“黃帝之史倉頡見鳥獸蹏迹之迹，知分理之可相別異也，初造書契。”

로 역경사업에 종사한 승려들은 언어문제에 부딪치게 되어 그들은 진지하게 梵漢언어의 특징을 대비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안되어 이에 비로서 어음구조에 대한 인식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범어가 각 글자음마다 體文(자음)과 摩多(모음)으로 나뉘는 개념은 중국 고유의 雙聲·疊韻의 원리에 응용되어 음을 표기하는 데에 있어 反切이 발명되었는데³⁾ 이는 한자의 음절을 聲과 韻으로 나눈 초보적인 개념으로서 기존의 표음방식과는 구별되는 과학적이고 기능적이며 새로운 차원의 표음방법이었다. 또한 인도의 승려들이 중국어를 습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밀한 범어학의 지식을 동원하여 범어의 격식에 한자를 대입하여 만든 韻圖를 만들었는데 이는 중국의 승려들이 범어를 익히는데도 긴요한 참고서가 되었다. 후에 불교에 관심을 갖던 문인들은 점차 운도에 구현되는 어음의 구조에 관심을 갖게 되어 불가에서 전해진 운도를 통해 정밀한 음운구조를 터득하게 되었다.

宋代에 邵雍(1011-1077)은 부친 邵古에게서 습득한 불가계통의 범어학 지식과 스승 李之才로부터 전수받은 도교계통의 象數學 이론을 방증으로 삼아 《皇極經世·聲音唱和圖》를 지었다. 《聲音唱和圖》의 ‘唱’과 ‘和’는 ‘天聲唱地音’ 또는 ‘地音和天聲’의 의미로서 聲類와 韻類가 차례로 병합되어 만물의 모든 음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그는 《周易》에서 도출한 象數개념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음을 숫자로 연역한 후, 표준적이고 이상적인 어음체계를 제시하여 궁극적으로는 訛音을 시정하고자 한 것인데 이는 어음 안에는 도가 담겨져 있으므로 우주만물의 생성원리를 적용시켜 올바른 음을 구현해내야만 진정한 도를 재현할 수 있다는 ‘天人合一’, ‘聲音教化思想’의 전통적 사유특징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래에 《皇極經世·聲音唱和圖》를 수록하면 다음과 같다.⁴⁾

十卷				九卷				八卷				七卷			
下		上		下		上		下		上		下		上	
辰	辰	辰	辰	星	星	星	星	月	月	月	月	日	日	日	日
辰	星	月	日	辰	星	月	日	辰	星	月	日	辰	星	月	日
聲	聲	聲	聲	聲	聲	聲	聲	聲	聲	聲	聲	聲	聲	聲	聲
入	入	入	入	去	去	去	去	上	上	上	上	平	平	平	平
翁	關	翁	關	翁	關	翁	關	翁	關	翁	關	翁	關	翁	關
○	○	八ua	舌a	退uai	愛ai	化ua	個a	每uai	宰ai	火ua	可a	回uai	開ai	禾ua	多a
○	○	○	○	聲uəŋ	巨əŋ	況uaŋ	向aŋ	永uəŋ	井əŋ	廣uaŋ	兩aŋ	兄uəŋ	丁əŋ	光uaŋ	良aŋ
○	○	○	○	巽uən	良ən	半uan	巨an	允uən	引ən	犬uan	典an	君uən	臣ən	元uan	千an
玉uəu	六əu	霍uau	岳au	○	奏əu	報uau	孝au	○	斗əu	寶uau	早au	○	牛əu	毛uau	刀au
北uəi	德əi	骨ui	日i	貴uəi	○	師ui	四i	水uəi	○	子i	○	龜uəi	○	衰ui	妻i
○	○	○	○	虎u	去o	用uŋ	象oŋ	虎u	鼠o	雨uŋ	孔oŋ	烏o	魚o	龍uŋ	宮oŋ
妾ap	○	十əp	○	○	欠am	○	禁əm	○	坎am	○	審əm	○	男am	○	心ə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反切이란 성모가 같은 글자와 운모가 같은 두 개의 글자로 어느 한 글자의 음을 표음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都宗切, 冬 : 都 d(u) + 宗 (z)ong = 冬 (dong). 그리고 한자는 기본적으로 표의문자이므로 反切이 발명되기 전에도 譬況, 讀若, 直音 등 字音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다.

4) 재구음에 대해선 拙稿, 《皇極經世·聲音唱和圖研究》(연세대 박사논문, 1996.)의 V. 《皇極經世·聲音唱和圖研究》의 음운체계를 참조.

地音圖	石石音閉濁	石土音閉清	石火音閉濁	石水音閉清	土石音收濁	土土音收清	土火音收濁	土水音收清	火石音發濁	火土音發清	火火音發濁	火水音發清	水石音開濁	水土音開清	水水音開濁	水水音開清
	蚘g'	棄k'	葵g'	葵k'	乾g'	丘k'	近g	九k	□	巧k'	□	甲k	□	坤k'	□	古k
	堯 ㄩ	□	賢Y	血x	月 ㄩ	仰 ㄩ'	雄Y	香x	牙 ㄩ	瓦 ㄩ'	華Y	花x	吾 ㄩ	五 ㄩ'	黃Y	黑x
	民m	米m'	寅Y	一?	眉m	美m'	王j	乙?	□	貌m	馬m'	交j	亞?	目m	□	安?
	未ㄨ	尾ㄨ'	吹v	飛f	□	□	□	□	萬ㄨ	晚ㄨ'	凡v	法f	文ㄨ	武ㄨ'	父v	夫f
	瓶b'	匹p'	鼻b	必p	平b'	品p'	備b	丙p	排b'	朴p'	白b	百p	旁b'	普p'	步b	卜p
	■	■	■	■	田d'	天t'	弟d	帝t	覃d'	食t'	大d	丹t	同d'	土t'	兒d	東t
	■	■	■	■	離l	呂l'	年n	女n'	舉l	冷l'	南n	妳n'	鹿!	老l'	內n	乃n'
	■	■	■	■	全dz'	七ts'	匠dz	足ts	才dz'	采ts'	在dz	哉ts	曹dz'	草ts'	自dz	走ts
	■	■	■	■	□	□	象z	星s	□	□	□	三s	□	□	寺z	思s
	■	■	■	■	二nz	耳nz'	石z	手s	□	□	土z	山s	■	■	■	■
	■	■	■	■	辰dz'	赤ts'	□	震ts	崇dz'	又ts'	乍dz'	莊ts	■	■	■	■
	■	■	■	■	呈dz'	丑tc'	直dz	中tc	茶dz'	圻tc'	宅dz	卓tc	■	■	■	■

후대에 《皇極經世書》는 유학의 경전으로서 매우 존중되고 체계적으로 연구되었는데 당시 유학은 지식과 생활, 행위와 이념을 선도하는 총체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시대의 중심사상으로 기능하였으므로 문인들이 신유학을 공부하면서 접하게 된 소용의 정음관은 바로 그 세계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언어관으로 인식되었다.

3. 한글 음성문자체계의 원리와 응용

世宗 元年(1419)에 유교의 지도이념에 합당한 체제정비를 수행하고 유교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하고자 《四書大典》, 《五經大典》, 《性理大典》을 수입하여 본격적으로 유교를 學習·研鑽하게 되어 유교 이념은 국가·사회·가정·개인에게 모두 적용되었다. 그리하여 사회의 모든 문화양상은 유교를 사상적 기초로 하여 전개되었으며 이에 《性理大典》 7~13권에 수록되어 있던 邵雍의 《皇極經世書》의 聲音理論은 바로 유교 이데올로기에서 보편적인 聲音觀으로 인식되는 사상적 근거가 되었다.

세종과 집현전학자들은 유교적 언어관에 입각하여 ‘天聲(韻母)’과 ‘地音(聲母)’가 결합하여 세상의 모든 음을 이룬다는 사실을 터득하였다. 그리고 지형이 한 구획을 이루어 지세와 기후의 조건이 아주 달라지면 말소리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되는데 조선은 중국과 안팎으로 山河가 가로 놓여 지형의 특징상 근본적으로 말소리 자체가 같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말소리가 다르므로 이에 따라 글자도 같을 수 없다.’라는 확고한 인식에서 세종 25년(1443)에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訓民正音·制字解》의 내용을 아래의 도표로 정리할 수 있다.

五音 (聲)	象形內容	基本字	加劃字	異體字	五行	五時	五音 (樂)	五方
牙	象舌根閉喉之形	フ	ヲ	ㄠ	木	春	角	東
舌	象舌附上齶之形	ㄴ	ㄴ ㄷ ㄹ	ㄴ	火	夏	徵	南
脣	象口形	ㅁ	ㅁ ㅂ ㅅ		土	季夏	宮	中央
齒	象齒形	人	ㅅ ㅆ	△	金	秋	商	西
喉	象喉形	ㅇ	ㅇ ㅎ		水	冬	羽	北

	字形	象形內容
基本 字	、	圓 象乎天
	—	平 象乎地
	丨	立 象乎人

	制字基準	字形說明
初出 字	ㄠ	、與—合而成 取天地初交之義也
	ㄴ	丨與、合而成 取天地之用發於事物待人而成也
	ㅁ	—與、合而成 亦取天地初交之義也
	ㅅ	、與丨合而成 亦取天地之用發於事物待人而成也
再出 字	ㄴ	與—同而起於丨 起於丨而兼乎人，二其圓者 取其再生之義也
	ㅁ	與丨同而起於、 起於、而兼乎人，二其圓者 取其再生之義也
	ㅅ	與ㅁ同而起於、 起於、而兼乎人，二其圓者 取其再生之義也
	ㅆ	與ㅅ同而起於、 起於、而兼乎人，二其圓者 取其再生之義也

그러나 《訓民正音·用字例》나 《訓民正音·合字解》에 보이는 15C 고유한 우리말의 실제 어음에는 전탁음(혀다(引), 쏘다(射) : 《訓民正音·合字解》)과 순경음(사비(蝦), 드뢰(瓠) : 《訓民正音·用字例》)이 존재하였는데 《훈민정음·제자해》 28字的 기본자에는 전탁음과 순경음이 포함되지 않았다. 세종과 집현전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발음원리를 설명하면서 기존의 글자꼴을 並書하거나 連書하여 표기하도록 하였다.

전청 글자를 나란히 써서 전탁글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전청소리가 영겨서 전탁소리가 되기 때문이다. 단지 후음의 경우 ㅎ(차탁)이 ㅇ(전탁)에 비해 소리가 얇기 때문에 차청이 영겨서 전탁이 된다.⁵⁾

ㅇ을 순음 아래에 이어 쓰면 경순음자가 되는 것은 입술을 갑자기 다물어 목구멍소리가 많아지기 때문이다.⁶⁾

또한 세종은 明과 교역을 하기 위해 명의 흥정운서인 《洪武正韻》을 번역하도록 하였는데 《洪武正韻》에 구현된 正音체계는 중국의 현실음계와 커다란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洪武正韻譯訓》에는 《洪武正韻》에 구현된 正音 이외에 당시 북방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제음도 아울러 표기하여 이를 俗音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洪武正韻譯訓》에는 중국 실제 어음체계를 표기하기 위해 특징적으로 15C 중국 북방음에서 변별되었던 齒頭

5) 《訓民正音·解例》：“全清並書則爲全濁，以其全清之聲凝則爲全濁也。唯喉音次清爲全濁者，蓋以ㅇ聲深不爲之凝，ㅎ比ㅇ聲淺，故凝而爲全濁也。”

6) 《訓民正音·解例》：“ㅇ 連書脣音之下，則爲脣輕音者，以輕音脣乍合而喉聲多也。”

음과 正齒音, 脣重音과 脣輕音을 구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음을 변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글자꼴이 필요하므로 발음원리에 따라 순경음은 連書하였고 (예를 들어, ㅍ: ㅍ(芬) ㅍ: ㅍ(浮) ㅍ: ㅍ(文)), 齒音의 기본 글자를 변형시켜 齒頭音과 正齒音을 발음부위의 차이에 따라 齒頭音은 앞 획을 길게 하고(ㅈ: 진(津) ㅊ: 친(親) ㅊ: 쥘(秦)ㅈ: 선(先) ㅊ: 쥘(旬)), 正齒音은 뒤의 획을 길게 하여(ㅈ: 진(眞) ㅊ: 친(曠) ㅊ: 쥘(陳)ㅈ: 산(刪) ㅊ: 쥘(辰)) 새로운 글자꼴을 만들었다.

아울러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을 창제한 이래 시급하게 착수한 것은 전승된 조선 한자음을 바로 잡는 일이었다. 유교국가로서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語文政策부터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洪武正韻》은 어음체계상 조선한자음의 모범이 되기에는 어긋나는 점이 많았기 때문에 《洪武正韻》에 구현된 정음체계를 따를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조선 한자음을 교정하기 위한 독자적인 정음체계를 세우기 위해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은 통속적 언서인 《古今韻會舉要》의 체계를 바탕으로 이미 전승된 조선 한자음의 정황을 참작하여 《東國正韻》⁷⁾을 편찬하였다. 당시의 이념체계를 지배하였던 유교적 언어관에서 볼 때, 《東國正韻》의 정음체계는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유교를 연찬하여 터득한 조선한자음에 대한 정음관의 구현인 동시에 理想적 성격의 어음체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理想적인 조선한자음의 체계를 위해 《東國正韻》에는 한자음에 청탁이 구별되지 않는 것을 訛音이라고 여겨 ‘ㄱ: 공(統), ㅊ: 동(騰), ㅊ: 뽕(朋), ㅊ: 쥘(曾), ㅊ: 쥘(繩), ㅊ: 흥(恆)’와 같이 전탁음을 변별하였다.

그러므로 세종조에 제작된 《훈민정음·용자해, 합자해》, 《홍무정운역훈》, 《동국정운》은 편찬동기와 목적에 따라 각각 다른 어음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즉 《훈민정음·용자해, 합자해》에는 고유한 우리말체계가 표기되어 있고, 《홍무정운역훈》에는 15세기의 실제 중국어음체계가 기재되어 있으며, 《동국정운》에는 이상적인 한자음체계가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상이한 어음체계를 한글은 27개의 기본글자꼴을 連書 또는 竝書하거나 글자꼴을 변형시켜 각 어음체계에 합당한 글자꼴을 제공하여 각 문자체계를 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예를 통해 다음 두가지 한글음성문자의 활용원칙을 규정할 수 있다.

첫째, 우리 말소리에 바탕을 두고 발음원리를 설명한다.

둘째, 새 글자꼴은 기본 글자꼴에 발음부위와 발음방법을 상형하여 만든다.

이러한 간단한 원리의 한글 음성문자는 무한한 활용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오늘날 영어·불어·독어 등⁸⁾ 외국어를 표음하는 데에도 예외없이 적용될 수 있다.

오늘날 국제 음성학 협회(Internation Phonetic Association)가 제정한 국제음성문자(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에는 아직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명실공히 국제적 성격의 음성전사 문자체계로서 세계 모든 언어의 말소리를 표기하는데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자개혁이 필요한 모든 언어에 지침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글을 음성문자로 활용한다면 한글은 수 천년간 인류의 어음에 대한 사유와 고도의 어음기술이 집약된 연역적 방법의 문자체계일 뿐만 아니라 글자꼴의 유용성·응용면에서 I.P.A보

7) 23자모체계, 91운모, 平上去入 四聲體系로 된 구성된 『東國正韻』은 世宗 29년 9월에 6권으로 편찬 완료되고 30년(1448년) 10월에 간행되었으며, 편찬자는 崔恒 · 朴彭年 · 申叔舟 · 成三問 · 姜希顔 · 李埏 · 李賢老 · 曹變安 · 金侖 등 9명이었다.

8) 이현복, <한글음성문자>, 112쪽, (『국제음성문자와 한글음성문자』, 과학사, 1989.)

다 월등히 과학적이고 기능적인 완전한 음성문자이다.

4. 맺는 말

인도의 선진적인 언어기술방법이 중국에 전래된 후, 중국인들은 反切을 발명하여 표음이 불완전한 한자의 문자적 기능을 보완하였고, 발음방법과 발음부위를 명시한 운도를 통해 고도의 어음 분별력을 갖출 수 있었다. 宋代에 신유학이 성립하자 중국의 문인들은 이러한 고도의 어음분별력을 바탕으로 세상의 모든 음의 생성 원리를 담은 韻圖를 제작하여 자신이 상정하는 正音체계를 구현해내고자 하였다. 이는 올바른 음을 통해야만 성인의 도에 이를 수 있다는 규범적 의미 이외에 음을 통해 ‘天人合一’을 구현하고자 하는 전통적 사유특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작자마다 방언의 차이가 있었고 古音을 추구하는 어음기준이 달랐으며, 무엇보다도 운도에 대입된 글자가 표음기능이 불완전한 ‘漢字’였기 때문에 어느 운도도 준거가 될 수 없었다. 결국 오늘날 중국에서 正音觀은 한때의 사상계를 지배하였던 홀려간 옛 사상이 되어 버렸고, 아직까지도 표음문체에 있어 한자가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1958년 ‘漢語拼音方案’을 확정하여 서양의 라틴자모를 빌어 한자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조선은 중국에서 생성 및 발전을 겪은 한자에 대한 사유전통 - 正音觀과 어음이론을 전수받아 발음부위와 발음방법을 상형한 표음문자인 한글을 창제하여 한자의 고질적인 표음기능을 해결하는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이는 조선이 당시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충실하였던 문화 선진 국가였지만 《훈민정음·서문》에 분명히 밝혔듯이 ‘나랏말싸미 듕귎에 달아 문중·와로 서르스뭇디 아니홀썸 ...’⁹⁾라는 신흥 유교문화국가로서의 자주·독립성과 확고한 학문적 소신이 이룬 결과였다.

그러므로 한글은 세계 어느 문자처럼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문자체계가 아니라 수천년간 인류의 어음에 대한 사유와 고도의 어음기술이 집약된 문자관에 의해 연역적 방법으로 창제된 문자체계이므로 다른 문자와는 차별적인 연구방법이 요구된다. 본문에서 고찰하였듯이 세종조에 편찬되었던 《訓民正音》《洪武正韻譯訓》《東國正韻》는 제작 목적과 배경이 달라서 각각 상이한 어음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각 어음체계가 필요로 하는 글자꼴을 한글은 27개(자음16개, 모음11개)의 기본글자꼴에 발음부위 및 발음방법을 상형한 새로운 글자꼴을 제공하여 각각의 문자체계를 구성하였다. 유교적 이념하에 세상 모든 음의 생성 원리에 의해 창제된 한글은 세상의 모든 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체계인 것이다. 이러한 한글음성문자의 원칙은 오늘날 이질어음체계의 외국어를 표음하는 데에도 예외없이 적용될 수 있다.

오늘날 西勢東漸의 시대에 동양의 이러한 사유 전통은 단절되고 모든 동양의 지혜가 집적된 문헌들은 서양식 사고와 편견에 의해 왜곡되면서 화석화되어 버렸다. 그러나 한글의 우수성은 거꾸로 서양식 학문방법으로 교육받은 우수한 언어학자들에 의해 재인식되고 있다.

이현복교수는 영국 런던대학에서 유학 당시 음성기호로서의 한글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9) 《訓民正音·序文》：“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 故愚民 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 多矣. 予爲此憫然 新制二十八字 欲使人人易習 便於日用矣.”

<한글음성문자>에서 “세종이 만들어 내신 한글에서 출발하고, 한글을 이용하여 상당히 자세한 소리까지 표시하고자 한글음성문자를 제작하였다”고 하면서 글자꼴의 유연성·응용력에서 국제음성문자(I.P.A)보다 월등히 과학적인 한글음성문자의 계발을 주장하였다.¹⁰⁾ 또한 미국 Berkely대학의 저명한 언어학자 William S-Y. Wang은 한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문자와 어음과의 관계가 가장 가까운 문자는 한국의 諺文(한글)이라고 할 수 있다. 한글은 한 획 한 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바로 한국어음의 phoneme(구별성특징)과 관련되어 있다. 모음과 자음이 각각 체계를 이루고 있어 모음에서 어떻게 쓰면 전 원음과 후원음이 되는 지, 자음에서 어떻게 쓰면 유성음과 무성음이 되는 지. 이러한 것들을 한글에서는 모두 표현해낼 수가 있다. 여러가지 면에서 볼 때 한글이 어음과의 관계가 가장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¹¹⁾

그러므로 수 천년간 어음에 대한 인류 사유의 결정체이며 발음부위 및 발음방법을 상형한 기능적인 문자체계로서 한글음성문자체계의 배경과 효율성에 대해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申叔舟 等, 《東國正韻》, 서울: 대제각, 1975.
 崔錫鼎 等, 《經世訓民正音圖說》, 서울: 대제각, 1975.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0.
 김석득, 《우리말연구사》, 정음문화사, 1992.
 이현복, 《국제음성문자와 한글음성문자》, 과학사, 1989.
 유창균, 《국어학논고》, 계명대학교출판부, 1984.
 唐作藩, 《音韻學教程》,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1.
 饒宗頤, 《梵學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3.
 林燾·王理嘉, 《語音學教程》, 北京大學出版社, 1991.
 何九盈, 《中國古代語言學史》, 鄭州: 河南人民出版社, 1985.
 Jerry Norman, 《Chine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S. Robert Ramsey, 《The Languages of China》,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拙稿, <中古漢語의 重組研究>,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_____, <譯語類解小考>, 연세대: 『文鏡』 제4호, 1992.
 _____, <顏之推의 언어관 연구>, 연세대: 『中國語文學論集』 제7호, 1995.
 _____, <皇極經世·聲音唱和圖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0) 이현복, <한글음성문자>, 112쪽, (《국제음성문자와 한글음성문자》, 과학사, 1989.)

11) William S-Y. Wang(王士元), <語言和文字的生理基礎>, 《語言學論叢》 第11輯, 北京: 商務印書館. 130쪽.